

**332만 소상공인, 132만 취약계층에게 부족하지만
작은 희망을 준비했습니다.**

대선 후 반드시 빠르게,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.

- 「더불어민주당」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5대 성과 -

1. 정부안 14조원 → 16.9조원(3.3조원 증, 예비비 0.4조원 감)

2. 소상공인 지원(+1.3조원)

① 손실보상(+0.9조원): 보정률 80%에서 90%까지 확대, 식당, 카페 등
간막이 설치업종 포함

② 방역지원금(+0.4조원): 간이과세자, 연매출 10~30억원 사업체 포함

3. 132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(+0.7조원)

- 특고, 프리랜서, 법인택시·노선버스운전자, 문화예술계 및
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등

4. 오미크론 확대 대비 방역체계 강화(+1.3조원)

-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지원, 선별검사소 등
방역인력지원,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증액 등

5. 부대의견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,

청년희망적금 보강,

전세·노선버스 기사 50만원 수준 추가지급

□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명 수준까지
급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고통이 더는 참기 어려운
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.

- 이에 우리 당은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자고 정부와 야당에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.
- 지난 1월 24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
 - 이에 대해 우리당은 ① 충분한 손실보상 ②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③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체계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습니다.
- 그 결과 당초 정부안(14조원)에 대해 2.9조원을 더 증액(3.3조원 증액, 예비비 0.4조원 감액)하여, 총 16.9조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,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소상공인 손실을 더 두텁게 보상

-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%에서 90%까지 확대하고,
 - 방역조치 방안으로 칸막이 설치를 선택한 약 60만개의 식당, 카페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실시

② 332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

- 1차 방역지원금(100만원)에 이어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씩 지원
 - 매출이 감소한 매출 10억~30억 이하 사업체(2만개)와 영세 간이 과세자(10만개)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

③ 특고, 프리랜서 등 132만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각지대 축소

- 특고, 프리랜서, 방과후강사 등 68만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(기존 50만원, 신규 100만원)

- 법인택시, 전세노선버스 운전기사(16만명) 지원과 함께 공연, 영화, 방송인 등 **문화예술인 4.3만명**에 대한 지원 추진
 - *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4만명, 100만원), 한국영화개봉촉진 지원,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, 영화·방송제작 인력지원 등
- 문화재(59개소) 방역인력 지원 외에 관광지 방역인력(3천명, 6개월)* 및 예술단체 대관료**(1,333건, 3백만원) 지원 병행
 - *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, **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
- 요양보호사(36.8만명)에 대한 한시 지원, 장애인활동보조인(3천명, 3개월)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돌봄비용지원(6만명)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

④ 오미크론 확대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

-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(4개/월)를 제공하고 선별검사소에도 2개월간 월 3천만건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를 제공
- 의료인력(2만명)에 대해 감염관리수당(5만원/일)을 3개월 추가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방역인력(1.4만명, 1만원/일)에 대해서도 6개월 추가 지원 추진
-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 반영
- 아울러, 정부로 하여금 **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** 하고 **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**을 줄 조치를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 촉구하였습니다.
 - 먼저, 금년 3월말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(21.11말 잔액 기준 132조원)에 대해 “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” 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또한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“**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시**,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” 토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“법인택시 및 전세·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한시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되,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” 하기로 했습니다.
- 우리 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는 이번 추경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
-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대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**보완대책을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.**

2022. 2. 21.


더불어민주당
 정책위원회 의장 박완주